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조지아주의 붉은 언덕에서 노예의 후손과 노예주인의 후손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앉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글거리는 불의와 억압이 존재하는 미시시피주가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가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내 아이들이 피부색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지 않고 인격을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인종차별주의자들과 주지사가 간섭하니 무효니 하는 말을 떠벌리고 있는 앨라배마 주에서, 흑인 어린이들이 백인어린이들과 형제자매처럼 손을 마주 잡을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골짜기마다 돋우어지고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주님의 영광이 나타내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꿈입니다.

위의 글은 미국사회에서 흑인의 평등을 주장한 민권운동가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링컨대통령 동상 앞에 모인 25만 군중을 놓고 준비된 연설문 없이 평소 바라고 기도했던 자신의 꿈에 대해 설파한 유명한 연설이다. 링컨대통령의 노예해방연설문과 비견되는 이 명 연설을 한 킹 목사는 최연소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고 사후에는 조지 워싱턴 대통령 이후 개인의 생일이 국정공휴일로 지정된 영광을 안기도 하였으며, 사랑의 사표로 전 인류에 추앙받고 있으나 한창나이에, 자신의 꿈이 이뤄지기 전, 흉탄에 쓰러진 비운의 인물이기도하다.

사람은 누구나 크던 작던, 이기적이던 이타적이던 자신의 꿈을 가지고 있다. 꿈이 없다면 희망이 없는 것이요 따라서 목숨은 있으되 죽은 자와 같은 것이다. 이러한 꿈은 평생을 아우르는 원대한 꿈도 있으며, 일정기간 특정한 일에 대한 목표 성취의 꿈도 있다.

필자는 본 협회의 편찬담당 이사를 맡아 「건축사」지 편찬을 관장하면서 하나의 꿈을 가지고 있었다.

건축사의 역할은 건축사법에 명시된바와 같이, 건축물의 설계와 감리 외에 건축물의 조사 또는 감정에 관한 업무, 및 검사확인에 관한 업무 등이 있으나 역시 가장 본질적인 것은 건축설계에 관한 일일 것이다. 따라서 필자의 꿈은 「건축사」지가 건축사들이 설계를 하는데 필요한 새로운 자료들을 공급하고, 완공된 건축 작품을 서로 나뉘보고 기록으로 남기는데 있었다.

물론, 그간 이러한 기능을 「건축사」지는 비교적 충실히 해왔다고 자부한다. 상업지들이 아주 유명한 또는 유명작가들의 작품만을 다룰 때, 「건축사」지는 회원의 작품이라면 다소 질이 떨어진다 해도 어느 것이나 제출한 것은 게재하였다. 이는 건축이 시대의 거울인 만큼 비록 작품성이 떨어진다 해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시대의 사명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또한 설계의 기본이 될만한 것이나 역사의 한 획을 그을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일,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회장단이 참석하여
 창작에 걸림들이 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기를
 건축청이 신설되고, 2중 처벌이 없어지며, 종전과 같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성숙한 건축문화의 꽃이 피기를
 건축사의 업적이 확대되어 뛰어난 후진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큰 사무소나 작은 사무소가 제각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만한 논문들을 게재하여 균형을 이루도록 하였고, 바쁜 개업건축사를 위하여 해외 잡지나 인터넷 건축소식을 정리하여 보내는 일도 꾸준히 시행하였고 건축사협회를 비롯한 대소 건축계 활동도 항상 정리하였다. 이러한 상태에서도 항상 필자의 가슴을 아프게 한 것은 대부분 필자가 쓰는 권두칼럼의 내용이었다.

작년 9월부터 금년 8월까지 1년간의 권두칼럼의 제호를 보자. 설계검입과 관련한 글이, 이해찬 총리께 드리는 글을 비롯하여 5편, 인증원, 등록원 관련 및 규제완화에 대한 정책대안 제시 등이 각 1편, 건축사법 관련 1건 등 무려 8편이, 건축사의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규제하는 정부에 대하여 투쟁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필자는 이러한 글들이 「건축사지」에서 사라지기를 꿈 꿔 왔다.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는데 따르는 고뇌, 완성하였을 때의 환희, 건축인들의 사색의 공간을 담아내는 그런 글들로 채워지기를 소원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하여, 부당한 것에 대하여 우리의 소리를 내야 했으며, 본지가 유일한 매체 이기에 메아리가 없어도 목이 메도록 아우성을 쳐야 했다.

이제 금번호부터 그런 괴롭고 억울하고 분통 나는 글을 쓰지 않아도 되게 되었다. 「건축문화신문」의 창간호를 내면서 그 역할을 대신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간은 유일한 매체가 「건축사」지 밖에 없었으나 이제 격주간이긴 하지만 어엿한 신문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수고한 「건축사」지는 이제 본연의 일에만 더욱 충실하면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나의 꿈은 이루어진 것인가?

아니다. 단지 무대를 옮겼을 뿐이다. 그렇지만 꿈을 꾸어야 하지 않겠는가.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대한건축사협회의 창립일, 대통령이 베푸는 만찬에 회장단이 참석하여 창작에 걸림들이 되는 것을 모두 이야기할 수 있기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청이 신설되고, 2중 처벌이 없어지며, 종전과 같은 윤리위원회의 권한이 강화되어 성숙한 건축문화의 꽃이 피기를.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의 업적이 확대되어 뛰어난 후진들이 날개를 활짝 펼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며, 큰 사무소나 작은 사무소가 제각기 소임을 다 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지금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지는 물론 「건축문화신문」에도 이렇게 기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건축사」지 권두 칼럼에는 창작의 기쁨이 샘솟는 글들이 오르게 하소서. 창작과정의 고뇌를 공유할 수 있는 글이 쓰여 지게 하소서. 사색의 한 자락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소서. 건축주, 시공자들과 함께 두둥실 춤 출 수 있는 아름다운 광장이 되게 하소서. ㉮